또 오고 싶은 곳은 어디인가요?

현장체험에서 느낀 점 표현하기

2022. 내장산국립공원 백암사무소 현장체험 배움 (1학년)



백양사

백양사 창건과 역사

백양사는 1400여년 전 백제 무왕 32(631)에 승려 여환이 창건
창건 당시 백암사로 명명됐으며 고려 덕종 3년(1034년) 중연선사가 다시 고쳐 지어 정토사로 이름이 바뀌었다가 뒤에 조선시대에 이르러 조선 선조 7년 환영선사가 백양사라 이름을 고쳐 불렀다. 이어 1917년 만암 대종사가 고쳐 지어 오늘에 이르렀다.

백양사란 이름은 하얀 양을 제도한데서 유래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다. 조선 선조때 환영선사가 영천암에서 금강경를 설법하는데 수많은 사람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법회가 3일째 되던날 하얀 양이 내려와 스님의 설법을 들었고, 7일간 계속되는 법회가 끝난 날 밤 스님의 꿈에 흰양이 나타나 '저는 천상에서 죄를 짓고 축생의 몸을 받았는데 이제 스님의 설법을 듣고 업장 소멸하여 다시 천국으로 환생하여 가게 되었다'고 절을 하였다. 이튿날 영천암 아래에 흰 양이 죽어 있었으며 그 이후 절 이름을 백양사라고 고쳐 불렀다.



※ 아래의 백양사 전각배치도를 보고 견학한 곳을 ○을 표시해 볼까요? ※

일광정 연못에 사는 물속 생물 찾아보기

백양사 갈참나무 그리기